

만남

10

2021

통권 57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제45회 정책당회 “행진하여 가라” 교회표어 결정

당회는 지난 9월 14일(화)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제45회 정책당회를 열어 각 부서별 내년도 사역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논의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2022년도 영락교회 목회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교회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는 비전을 담아 내년도 교회 표어를 ‘행진하여 가라’(신명기1:6~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영락교회 목회제언>은 4~6면에 게재.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말씀대로 365 김운성
특별기고	04	2022년 영락교회 목회제언 김운성
특집	07	은자의 나라에서 전한 기적의 복음 전정희
	12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 차동혁
	14	대만선교, 가오송한국교회 발자취 조병래
	1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선교 장순홍
기획연재	20	빌립보, 아덴(아테네), 고린도 임대현
알림	25	2030 세대 탈종교화 원인과 대책
다음 세대	26	온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대학부
	29	2021년 여름성경학교의 기억
	30	강철부대 믿음의 용사 훈련 조한서
	32	온라인으로 다녀온 성지 순례 채희진
	34	전하Go! 사귀Go! 누리Go! 류혜선
	36	영락 청년들의 미션 챌린지! 청년부
	38	웹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화선
땅끝까지 이르러	41	‘영·코·프’로 선교적 예배 홍만우
	44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공동체 최영호
	46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김신희
알림	47	2022 향존직 선거
영락의 울타리	48	울(All)라인 사역을 준비하는 영락교회 최현우
	50	멈출 수 없는 사랑 김우람
	52	치아 건강관리 김치홍
문화광장	55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병주
	56	하나님의 빛 이순영
교회소식	57	남선교회 헌신예배 외
	59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60	10월 목회력

표지설명



가을걷이가 시작된 황금들녘의 모습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선교와 전도의 알곡들이
무르익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말씀대로 365

-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살피자

김 운 성 위임목사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사야 63:10~11)

코로나19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 중에도 영락교회는 <말씀대로 365>와 함께 2021년을 출발했습니다. 어느덧 구약성경을 모두 읽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성도님이 <말씀대로 365>를 통해 은혜 받는다고 하시며, 매일의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묻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비상상황이지만 <119대작전>과 <한친구운동>을 진행했고, <말씀대로 365>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야 할 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를 생각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읽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구전과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일을 알았고, 특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신 일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모두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일을 잘 아는 것,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퀴즈대회에서 매년 1등을 한다 해도, 그가 사악한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 자체보다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앞에 적은 이사야 63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온갖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고,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이 이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은 과거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물으면 모두 손을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상을 받을 만큼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영혼의 사람도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고,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영혼이 부패한 자도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 <말씀대로 365>를 성실하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말씀의 눈으로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갔다는 것을 헤롯에게 알려줄 만큼 성경에 해박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고, 결국 주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주님의 대적이 오늘날엔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경책에는 손때가 묻겠지만, 우리 심령은 때가 벗겨져 깨끗하고 올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며 동시에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365>와 함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읽읍시다. 깨끗하고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가도록 기도하며 힘쓰시다. 그렇게 할 때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만남**

“행진하여 가라”

— 제45회 정책당회, 2022년 교회 표어 결정

당회는 지난 9월 14일(화) 제45회 정책당회를 열고 2022년도 교회 표어를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로 정했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영락교회 목회제언>을 통해 ‘코로나 상황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비전을 내년도 표어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운성 목사의 <2022년도 영락교회 목회제언>을 옮겨 게재합니다.

2022년은 영락교회가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2020년 3월 첫 주일 예배당 문이 닫힌 이후 지금까지도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학교의 타격이 크고, 구역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모임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신접종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위축으로 보이는 통계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예장 통합)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에만 무려 11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교단 역사상 최대 감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7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신앙이 게을러진 이유에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지 가능성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락교회도 신앙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교회는 홈페이지 접속 숫자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출석자 수보다 접속자 수가 많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 현황으로 간접 파악하기도 하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하면 이것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도 2022년도를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 구원받은 일은 그들을 크게 고무시켰을 것입니다. 그들

은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의 식양(式樣)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에는 성막을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시내 산 주변에 머문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성막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긴 영적 부흥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된 시내 광야에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고통을 참아낼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행진하여 가라”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한 것은 출애굽 후 제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민수기 10:11).

우리도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행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참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성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여기가 종사오니’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교회 전반에서 영락교회의 미래를 위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삶

코로나 비상 대응차원에서 진행했던 <119대작전>, <한친구운동>, <말씀대로 365>를 이을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와 복음전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손발이 잘린 형국으로 전도의 문이 닫혔지만, 성도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으로 인도하도록 활성화해야 합니다. 전도부와 새가족부 사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에 대응하여 새롭게 부상되는 영역을 찾아서 헌신해야 합니다.

영락교회의 미래를 위한 시동

코로나 상황에도 영락교회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영락’ 등 하드웨어적 변화를 추진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교회 내 각 부서는 내년에도 지속될 코로나 영향에 대응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해 온 관행, 시대 변화에 뒤쳐진 진부함,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효율성 등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 등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영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속해야 할 거룩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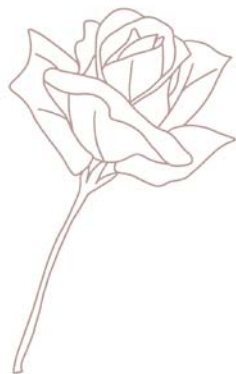
자원봉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청소 봉사, 교회 내 물품구매 창구 일원화 등 지금까지 실천해온 교회 사랑과 절약을 지속해야 하지만, 절약과 절제가 교회의 사역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절제하도록 노력하되 주님의 사역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온 코로나로 인해 교회 사역이 줄어서 교회 재정이 비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영락교회는 손을 떠는 교회가 되어 잉여 재정을 우리 사회와 교계, 교회 내의 어려운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흘려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2년의 주요 현안들

- 각종 훈련과 교육 내용의 온라인 콘텐츠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 소그룹 구성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 다음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영락교회 안의 다양한 전문인들이 직능별 소그룹을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에 착수한다. **만남**



‘은자의 나라’에 전한 기적의 복음 -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여성 선교사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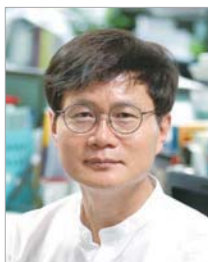
‘가장 기운 나며 가장 시험이 되는’

사역을 해쳐나간 사람들

1890년 7월 미국 북장로회 조선선교부 의료선교사 존 해론(1856~1890)이 창궐한 전염병을 치료하다 이질에 걸려 순직했다. 해론은 호러스 앨런 선교사에 이은 제2대 제중원 원장이기도 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지 5년여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다.

해론의 아내이자 동역 선교사인 해리엇 김슨(1860~1908)은 미지의 땅 조선에서 졸지에 ‘미망인’이 됐다. 1885년 6월 21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던 신혼부부는 그사이 딸 둘을 낳고, 병든 몸으로 가난한 조선 민중을 위해 의료와 교육에 치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의 사역을 위해 잠을 청하는 데도 무서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전정희
국민일보 논설위원 겸 부국장

인 저희가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여 약재로 쓴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장안에 퍼져 테러(이른바 ‘영아 소동’)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너른 집에서 저 혼자 딸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가 짓눌렸습니다. 권총을 제 베개 밑에 넣고 나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 제일 선교사 『Korean Sketches』 중에서

김슨은 남편의 순직 후에도 조선 땅에 남았다. 미국 테네시주 의사였던 아버지 데이비드 김슨과 여성 선교운동을 이끌던 어머니 사라 켈리 사이에 태어난 김슨은 미국 초기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전형적인 크리스천 여성 리더였다. 특히 19세기 북미 지역에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사역’ 수행이 큰 호응을 받았는데 김슨은 누구보다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미국 북장로회는 이런 그녀가 해외 의료사역을 꿈꾸던 존 해론과 결혼하자 1885년 1월 선교사로 임명했다. 테네시주 여선교회는 김슨을 조선이라는 나라의 여성 선교사역자로 파송했다. 여성 선교사를 ‘남성 사역자의 보조’로 밖에 여기지 않던 시절, 김슨은 적극적으로 조선말을 익히며 ‘조선의 금교(禁敎) 조치’에서도 조선의 유력자 부인들과 교제하며 선교사역에 힘썼다. 하지만 조선의 습한 기후와 두 아이를 낳으면서 생긴 유선염으로 인해 여학교마저 2개월 만에 중단하

고, 간신히 모은 서너 명의 아이들을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운영하는 여학교로 보내야 했다.

“여자들은 매 주일 오후 두세 시간씩 복음서를 공부한다. 30여 명이 참석할 때도 있다. 아홉 명은 앞날이 기대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들이 어서 빨리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기를! 이것이 내가 하는 일 중 가장 기운 나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가장 시험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1889년 4월 미국 북장로회 여성교회 선교잡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역과 우리의 선교현장』 중에서

김슨은 ‘가장 기운 나며 가장 시험이 되는’ 사역을 그렇게 해쳐 나가던 중 남편이 순직하는 고난을 맞았다. 조선 조정은 임금이 사는 사대문 안에 외국인의 시신을 두어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해론은 도성 밖 양화진에 묻힌 첫 사례가 되었다.

“갈급한 조선의 심령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남편도 저와 제 딸들을 지켜 주리라 믿습니다.” 김슨은 권총을 머리맡에 두고, 밤마다 침실 문 옆에 조선인 일꾼을 세워 신변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변과 소요가 수시로

일어났고 반외세 기치가 위협적이었다. 김슨은 1892년 4월 제임스 게일(1863~1937) 선교사와 재혼하고서야 그 불안감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해리엇 김슨의 조선에서의 호칭은 한국명으로 ‘혜론 부인’이었고 재혼 후에는 ‘기일 부인’이 되었다. 독립된 선교사의 위치였음에도 남성의 보조 사역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조선에 온 여성 선교사들 또한 지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역자에 지나지 않았다. 마치 우리나라가 파송한 수만 명의 해외 파송 선교사 부부 가운데 ‘아내 선교사’의 역할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김슨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성 교육과 전도, 그리고 게일 선교사를 도와 성경 및 『천로역정』 번역 등 개척선교사로서의 사명에 매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 선교사들

조선에 온 여성 선교사들의 헌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선교사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이화학당 등을 설립한 메리 스크랜튼(1832~1909), 의료 선교사였던 남편 제임스 홀(1860~1894)을 잃고 의료사역을 계속했던 로제타 홀(1865~1951),



해리엇 김슨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부인





독신 여성으로 빈민과 병자의 어머니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한국명 서서핑, 1880~1934)이다. 해방 후에도 부모(노블 맥켄지)의 한국 사역 뜻을 이어 부산 일신병원 등에서 여성 진료에 앞장섰던 헬렌과 캐서린 자매, 한국의 정치 격변에 희생당한 에텔 와그너(언더우드 1세의 며느리) 등 많은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사에 답했다.



2대에 걸쳐 선교와 의료봉사에 힘썼던
호주의 의료선교사 헬렌(매혜란)

1885년~1950년 무렵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미국 장로회 950여 명, 미국 감리회 430여 명, 호주 장로회 130여 명 등이었다. 대략 잡아도 이 중 600여 명 정도는 여성 선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70%가 20대 부부였고, 90% 이상이 대졸이었다. 10명 중 7명은 미국 국적이었다. 본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해 신앙 생활하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젊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목회와 의료, 교육에 종사하며 굶주리고 천대받는 한국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가부장

적 남편에게 맞거나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로했으며 한글 교육을 펼쳤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여학교에 입학시켰다. 로제타 홀이 거두었던 박 에스터(본명 김점동, 1877~1910)는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감리회 여선교사 미네르바 구타펠(1903~1912년 한국 사역)은 동상에 걸려 문밖에 버려진 아이 옥분이를 거두어 살려냈는데 두 손과 한쪽 다리를 잘리고도 목숨을 건진 옥분이의 첫 마디는 이랬다. “저는 행복해요. 또 여기에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이곳에 온 후로 배고픈 적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



로제타 홀과 딸 에디스, 아들 셔우드 홀(왼쪽)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로제타 홀 일가의 묘소(아래)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있는 언더우드家 기념관.
언더우드 2세와 결혼한 에델 와그너가 1949년 이곳에서
충격에 쓰러졌다.

기 있어도 된대요.”

열네 살 옥분이는 종의 신분이었고, 옥분이가 병들자 주인은 병원 앞에 버리듯 던지며 말했다. “가능하면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간호사 구타펠은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고 소녀는 사랑에 응답하듯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도 하나만 있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선교사님,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구타펠은 선교 보고를 통해 옥분이의 예수 영접을 전했다. 그는 귀국 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선 소녀 옥분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140가정이 1명(65.9%) 또는 2명 이상(29%) 가족을 잃었다는 통계가 있다. 풍토병과 순직 등이 이유였다. 여성 선교사의 어려움은 부부의 사명보다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 본능이었을지 모른다. 김슨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결코 피할 수 없었다.

로제타 홀은 청일전쟁 와중에 남편을 평양에서 전염병으로 잃은 뒤 아들과 딸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두 달여에 걸쳐 태평양을 건너 평양까지 들어갔다. 남편의 뜻을 잇기 위한 마음도 있었다. 한데 그 과정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딸 에디스를 평양에서 전염병으로 잃었다. 조선말을 조금씩 익히던 에디스였다. 강한 여성이었던 의료선교사 로제타는 딸을 양화진 남편 옆에 묻었다.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1893~1991)과 함께 평안도, 황해도, 서울, 경기도 등에서 의료 구제에 힘썼다. 크리스마스일을 보급한 이가 셔우드 홀이었다.

비운의 여성 선교사들

에델 와그너(1888~1949)는 총탄에 숨진 비운의 선교사였다. 언더우드 2세(원한경)와 1916년 결혼한 뒤 고아 사역에 몰두하던 그는 자택(현재 연세대 신촌캠퍼스 언더우드家 기념관)에서 한국인 사회주의자 학생이 쏜 권총에 희생됐다. 에델은 미국 미시간주 킹스턴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선교부 추천으로 한국에 파송됐다. 미국 장로회가 한국외국인학교에 파송한 첫 선교사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강제 추방된 에델을 비롯한 대다수 선교사가 해방되자 다시 선교지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해방 직후 남북이 갈리며 혼란이 계속됐고, 선교사들 또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적으로 간주되어 사역이 쉽지 않았다.



“20여 명의 교수 부인들이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보니 한 청년이 있었다. 청년은 무조건 방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우겼고… 옥신각신했다. 소란한 틈을 타 또 한 명이 어느새 뒷문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향해 뒤에서 총을 쏘았다. …어머니는 백낙준 총장 부인의 차로 세브란스로 옮기는 도중 운명하고 말았다.”

—1982년 언더우드 3세 원일한 박사
신문연재 회고 중에서

당시 신문은 연세대 학생 사회주의자들이 에텔 와그너와 함께 있던 시인 모운숙을 저격하기 위해 침입했다가 벌어진 우발사고였다고 보도했다.

지금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가면 ‘에텔마을’이란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 ‘에텔’이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에텔 와그너가 세운 고아원이 그 시작이었다. 에텔은 신혼시절에 서울 서대문 자신의 집에서 한국의 고아를 거두어 고아원을 운영했다. 이 고아원이 서울 용산구 청암동에 ‘기독교여자절제소녀관’으로 운영되다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마거릿 불과 아들

일제의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 제암리를 방문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마거릿 불(1873~1919)도 비운의 여성 선교사다. 마거릿은 남편 유진 벨(1868~1925)이 운전하던 차에 폴 크레인, 녹스 선교사 등과 함께 탔는데 지금의 화성 병점역 근처 철로를 지나다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마거릿과 크레인이 숨졌으며 녹스는 한쪽 눈을 실명했고 유진 벨은 찰과상만 입었다. 유진 벨은 첫 부인 로티 위더스푼 선교사를 1901년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잃고 재혼한 마거릿마저 먼저 보내야 했다. 로티는 신학교 총장의 딸이었고, 마거릿은 군산에서 활동한 윌리엄 불(한국명 부위림, 1876~1941) 선교사의 누이였다.

한국에 파송된 여성 선교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가정’을 지키는 ‘가정부인’이라는 자리에 충실하면서 전도를 위한 작은 모임들을 구축해 나갔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여성리더십으로 발전되었고 이제는 역으로 동남아 및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수만 명의 여성 사역자를 파송하는 힘이 되었다. 희생 없는 전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준 셈이다. **만남**



에텔 와그너가 세운 보육시설 ‘에텔마을’ (서울 천왕동)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

— 2021 선교대회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녁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35)

두 해째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 같습니다. 일상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역사가 쌓아온 복음 터전마저 흔들어놓는 것 같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한 선교사님들의 입국 거부와 활동 제약, 온라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과 존립에 위협받는 국내외 여러 교회, 코로나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선교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복음의 추수를 감당해야 할 선교의 손길들이 일상의 힘에 부쳐 축 늘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철쭉같이 어둡고 긴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에서 선교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멈추어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발걸음은 여전히 전진하십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멈춰 있던 70년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락교회의 눈을 들게 하시어 밭을 보게 하셨습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내딛던 선교의 발걸음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절망을 이기는 소망,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었습니다.

2021년,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코로나로 절망적인 이때야말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어 선교의 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십니다.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

2021년 영락 선교대회가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0월 8일(금)부터 15일(금)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영락교회가 우

선교부흥회와 학원선교대회, 선교전략세미나, 문화선교공연도 멈춤 없이 진행됩니다

리를 위해 일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과 다툼 그리고 코로나로 아파하는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대회의 사전행사로서 10월 8일 금요기도회는 본당에서 선교대회 특별금요기도회 및 문화선교축제로 열며, 온라인으로 창작 뮤지컬 〈바울〉을 공연합니다. 10월 10일 주일예배는 선교주일예배, 찬양예배는 한동대학교 김완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와 학원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는 학원선교대회를 드립니다. 10월 13일 수요일 부기도회는 인도네시아 김동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13(수)~15(금) 저녁 7시에 이번 선교대회를 위한 선교부흥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선교부흥회는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강

사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13~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선교사역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13일), 해외선교 전략세미나(14일), 군선교 전략세미나(15일)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교분야 전문가들과 현장 사역자들의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선교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멈추어진 이때,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영락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흑암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만남**

2021 선교대회(10.8~15) 주요 행사 및 일정

일 자	행 사	시 간	장 소
10/8일(금)	선교대회 특별금요기도회 (문화선교공연-바울)	금요기도회	본당
10/10일(주일)	선교주일예배	1~5부	본당
	학원선교대회	오후 5시 찬양예배	본당
10/13일(수)~15일(금)	선교부흥회	오후 7시	본당
10/13일(수)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	오후 1시 30분	온라인 (홈페이지)
10/14일(목)	해외선교 전략세미나		
10/15일(금)	군선교 전략세미나		



차동혁 목사
선교전담

대만선교, 가오슝한국교회 발자취



대만 가오슝한국교회 전경

대만의 공식 국명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2021년 현재 인구는 약 2,348만 명으로 한족(漢族)과 16개 고산족 원주민 부족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만을 ‘포모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1590년 유럽인 최초로 대만에 온 포르투갈 사람들이 초록의

로 뒤덮인 섬을 보고 ‘Ilha Formosa’(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라 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섬 대만에 우리 민족의 발자취가 처음 새겨진 것은 조선 영조 때인 1729년 9월 12일, 말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대만 장화(彰化)현 얼린(二林)항에 정박한 때이다. 배는 다음 해에 조선으로 돌아갔으나, 그 후에도 간간히 표류하던 조선 배가 대만 여러 지역에 닿을 내렸다고 한다.



대만 선교의 씨앗을 뿌리다

한국인이 대만에 장기간 상주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전후이다. 기록에 의하면 1903년 독립운동 자금 조달과 한인의 직업 알선을 위해서 평북 의주출신이 대만으로 이주하여 선흥사(鮮興社)라는 인삼농장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대만 한인 100년사).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 이후 대만에서 거주하던 수많은 한인이 조국으로 돌아갔으나 수송선의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대만에 남은 600여 명의 한인은 지룽(基

일본 패망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인 600여 명에게 복음의 문 연 지룽 한인교회가 첫 시작, 가오슝교회로 이어져

隆)항에 운집해 살았다. 그리움과 아픔, 희망도 없으나 그렇다고 절망할 수도 없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에 패망한 장개석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하면서 함께 온 정성원(鄭盛元) 선교사에 의해서이다.

정성원 선교사는 1905년 8월 26일 평북 철산에서 태어나 평양의 숭의여자중학교와 평양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동평양교회 전도사로 시무했다. 1933년 3월 만주로 가 한인교회에서 봉사하던 그는 상해로 옮겨 사업과 전도에 힘쓰던 중에 대만으로 건너갔다. 타이베이(臺北)를 거쳐 지룽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한 그의 첫 열매가 박성태 소년(후에 가오슝한국교회 1대 목사)이다.

1949년 11월 18일, 김희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계기로 지룽한국교회가 세워졌다. 정 선교사는 5년 후인 1955년 1월 2일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에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 1957년 5월 27일에는 타이베이(臺北) 한국교회를 개척했다. 그해 예장총회 전도사로 인준 받은 정 선교사는 1963년 예장통합 대만 선교사로 한국 교회의 대만선교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

정성원 선교사는 이국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인교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등 동분서주 복음을 전했다. 교민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를 ‘교포들의 어머니’로 인정하고 따랐다. 정 선교사는 이런 공로로 1963년 3.1 문화상과 해외교포 유공자상을 받았다.

가오슝한국교회가 시작되다

가오슝한국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려 한다. 1955년 1월 2일 지룽한국교회 정성원 선교사가

가오슝한국교회 주요사역

1) 한인사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인 이민자(외국에서 유학 중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다문화 가족) 중심으로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을 섬기는 사역, 신앙의 후손(2세대와 3세대)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며 신앙의 용사로 세우는 사역, 대만 주재 한국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협력하고 돕는 선교 전초기지 사역

2) 원주민 사역과 팀 사역

루카이어 성경이 영락교회 후원으로 출판된 이후 루카이족 목회자들이 성경을 지속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세미나 사역을 비롯해서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원주민교회 주일학교 교사교육과 성경학교 지원 사역

3) 교회 개척 사역

2015년 가오슝한국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대만 제3대 도시인 타이중(台中)에 일산거룩한빛광성교회와 협력하여 타이중한국교회 개척 사역

한인 이민자와 가족, 유학생, 여행객을 위한 타이난한국교회 개척이 새로운 소망

강을순 집사, 김희영 집사와 가오슝에 내려와 김 갑유 자매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가오슝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성 치과의사 박 봉남 전도사를 목회자로 세우고 교민 가정을 순회하면서 주일예배를 드렸고, 현지교회인 가오슝 구산(鼓山)장로교회를 빌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오슝한교(韓僑)학교(가오슝 한국국제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1962년에 타이난장로교신학원에 다니던 박성태 전도사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졸업한 후, 1967년 8월 29일에 대만장로교 가오슝노회 집례로 목사안수를 받고 가오슝한국교회 1대 목사가 되었다. 1981년 10월까지 20년간 교포들의 삶을 돌보며 전도하는 한편, 교회를 중심으로 원주민 소수민족선교와 사회봉사사역(유치원, 공부방, 협동조합 등)으로 초교파 에큐메니컬 사역에 헌신했다.

현재 가오슝한국교회 예배당 건축을 한지 54년이 되어간다. 1967년 당시 예배처소가 없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예배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대만 주재 한국대사였던 김신 대사가 대만 정부로부터 한국학교부지로 임대받은 현재 위치에 가오슝한국교회 예배당 건축이 되도록 도왔다. 한국 교민들의 삶을 위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정신

적 안정과 평안뿐 아니라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생명 등을 안위하는 곳이 되었다. 정성원 선교사를 통한 후원의 손길로 예배당을 완공하여 1968년 3월 31일 김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헌당예배와 함께 교회 헌판식을 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영락교회 후원으로 루카이어 성경번역 시작

가오슝한국교회에는 제2대 목사로 한덕성 목사가 영락교회 파송으로 1982년 2월 17일 부임하여 2005년 2월 20일 이임까지 23년간 교회와 원주민 선교사역을 했다. 한 목사의 선교사역 중 가장 손꼽히는 것은 원주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을 들 수 있다. 1988년 3월 15일 영락교회 재정후원으로 원주민 아메이족(阿美族)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 출판했다. 이듬해인 1989년 12월 초, 한 목사는 대만장로교 파이완족(排灣族)노회 루카이(魯凱) 대리회(시찰)사무실에 방문하



루카이어 신약성경출판 감사예배 (2001년 7월 9일) | 사진제공 역사자료실



루카이노회 목회자들과 함께 한 <출애굽기>세미나(2018년)

여 루카이어 신약성경 번역의 비전을 듣고 매주 성경 번역사역을 진행하는 루카이 대리회의 성경 번역부를 찾아 루카이성경 번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 목사는 영락교회에 후원을 요청했고, 1989년부터 10년간 루카이어 성경번역을 목적으로 영락교회 해외선교 특별헌금에 의해 2001년 9월 8일 루카이어 신약성경을 대만성경공회에서 출판했다.

한덕성 선교사는 2003년 루카이어 구약성경 번역고문으로 정식 초대되어 2004년부터 루카이어 구약성경 번역을 시작했다. 2005년 정년을 맞아 가오슝한국교회를 은퇴하고 귀국한 뒤에도 루카이어 구약성경 번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던 그는 2006년 2월 27일 현지에서 열린 성경번역 회의 참석 중 과로로 별세했다. 대만장로교 원주민 노회 루카이 대리회(현재 노회로 승격)는 원주민교회인 우타이(霧台) 교회에 루카이어 성경번역 공로기념비를 세우고 한 선교사를 기념하고 있다.

2017년 루카이어 성경 완역 29년간의 대역사 마무리

한덕성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루카이 대리회는 한 선교사 부인인 김정애 사

모를 구약성경 번역부 고문으로 초대했고, 2011년 3월 구약성경을 완역했다. 2017년 5월 루카이어 성경을 신구약 중국어와 루카이어 대조로 출간했으며, 그해 7월 11일에 29년간 제정을 포함해서 루카이어 성경번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원하고 기도해 준 영락교회와 번역 작업을 한 루카이노회, 그리고 두 기관의 가교역할을 한 가오슝한국교회가 대만장로교 루카이노회 하오차(好茶)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타이난 한국교회의 설립을 기도하며

2007년 2월 22일 제4대 목사로 필자가 부임하여 교회 목회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가오슝한국교회가 한인교회임과 동시에 다문화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민감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은 유학 중에 국제결혼을 한 한인(韓人) 이민자들과 가족, 유학생, 여행객을 위한 한인교회를 대만의 옛 수도이며 현재 4대 도시인 타이난(台南)시에 개척하는 것이다. 타이난 한국교회 개척에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드립니다. **만남**



조병래 선교사
대만 가오슝한국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선교, 성찰과 제안

— 2021 KWMF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마치며

한동대학교는 지난 7월 13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와 공동으로 '2021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선교, 성찰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선교 역사를 성찰하고 한국선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선교 전략을 새롭게 제안할 기회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빌립보, 그리스를 넘어 유럽을 지나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세계 인구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어 정착된 유일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와 선교사명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정체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1977년 미국 휘튼대학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44년 만에 처음 국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우리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 인도에 전파하는 복음 전략을 도출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pecially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은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를 비롯한 모든 크리스천은 ‘선교 사명자’임을 깨닫고 선교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파를 선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지식 통해 선교현장 접근할 수 있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육성해야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를 넘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선교, 문화콘텐츠를 이용하는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선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지식과 재원을 선교사역과 연결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통해 선교 현장에 접근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더욱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선교사 육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느꼈습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교를 다시금 부흥시키기 위한 차세대 선교사를 육성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 재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선교사 자녀 등 자원봉사자 160여 명이 이번 선교사대회를 섬긴 것처럼 많은 젊은이가 선교적 사명을 이어받아 차세대 선교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인세계선교사대회는 현재의 선교적 상황에 대한 성찰과 통찰, 제안, 소망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CTS 뉴스 화면 캡처)

온라인 기술과 개방된 세계화 속에 현지 선교사 키우는 전략 필요

선교 부흥을 위해서는 현지 선교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부흥에 크게 역할 했던 것은 미국인 선교사들의 직접적 활동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을 집중 육성·후원하고 국내에서 그 일련의 활동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선교는 온라인 기술과 개방된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현지 선교사 육성 전략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진행하며 새로운 선교전략 발굴과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당면한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선교의 방법과 전략, 파송 선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한국교회와 모든 크리스천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지속적인 선교사역 지원을 위해 한동글로벌사명원(Global Mission Institute)을 개원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넘어 한국의 기독교수들이 섬기며 산하에 약 60개가 넘는 부속센터를 확장

해 지역 및 기능별로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선교를 통한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여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선교사대회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국교회 선교의 부흥을 다시금 불러올 수 있는 귀한 해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남**



장순홍 총장
한동대학교
헤세드교회 장로

-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이 지도는 동로마 제국의 영토와 주요 도시를 보여줍니다. 주요 도시로는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이 있습니다. 지도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동로마 제국의 영토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는 또한 로마 제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여러 속주(프로빈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파란색 선)
 2차 선교여행 (점선)
 3차 선교여행 (점선)
 로마행 (검은색 선)



임대현 집사
성남·분당교구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1. 빌립보

빌립보는 에게 해에서 내륙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빌립 2세(B.C. 359~336)가 건설한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였는데 주변에 있던 유명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고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빌립의 도시라는 뜻)’라고 개명했습니다. B.C. 168년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작은 로마’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빌립보 성(城)은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퇴역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로마의 유공자들이 살았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대부분 사람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로마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행정특구 혜택을 받는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49~50년에 이 도시를 방문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줌으로써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을 배출했습니다.

빌립보에서 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고, ② 깊은 감옥의 간수와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③ 상관(관원)들에게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힙니다.

(1) 루디아

‘마게도냐에 가서 도우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힘써서 빌립보에 도착한 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밖 강가로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자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감동하여 복음을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후, 루디아는 강권하여(사도행전 16:15) 사도 바울과 실라를 대접합니다. 강권한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묵을 숙소에 대한 걱정을 먼저 말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루디아의 초대에도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첫날부터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빌립보서 1:5, 4:15).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그와 일행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렇게 루디아처럼 돕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사람, 유럽

과 세계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2)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지만, 억울하게도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수단으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 고발 내용이었습니

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를 치며 발을 차꼬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의 차꼬가 풀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열린 옥문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칼을 빼 들었을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몸을 상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이 바울의 억울함과 고통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사도행전 16:16~34).

(3) 로마 시민 바울

날이 밝자 지난밤에 일어났던 사태를 파악한 상관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찢기고 매 맞고 차꼬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힐 때는 로마인이라고 말하지 않다가 사건이 마무리되고 떠날 때야 우대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 바울과 루디아를 담았다. (왼쪽), 루디아기념교회(오른쪽)

| 사진제공 김한기 사진기자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상관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나와서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후에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된 바울은 아덴(아테네)에 도착합니다.

2. 아덴(현재의 아테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티카반도 중앙, 사로니크만 연안의 도시로 그리스 여신 아테나(Athena)를 기념하기 위해 ‘아덴(아테네)’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그림 2). 아덴은 서구 문명의 큰 축인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연과학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헬레니즘의 요람이 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로서 정치의 중심지였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으로서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도성에 사는 사람보다 신상의 숫자가 더 많았을 정도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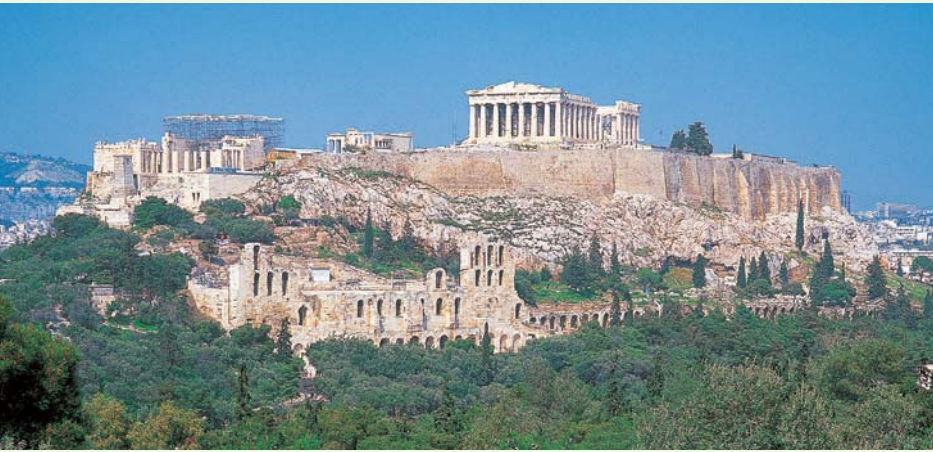
아덴에서 바울은 ① 격분했고, ②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1) 바울의 격분

바울이 격분한 이유는 아덴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사도행전 17:16).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격분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12~15, 마가복음 11:15~17, 누가복음 19:45~46, 요한복음 2:13~17).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화내신 진정한 이유를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고대 신전들

| 사진제공 김한기 사진기자

이 나를 삼키리라’(요한복음 2:17).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고 예수님이 화내셨던 것처럼 격분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나타나는 ‘격분’이었습니다.

(2)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바울은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아고

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학과(무신론자)와 스토아학과(범신론자) 철학자들과도 만났고, 종교와 교육 문제를 재판하고 토론하는 장소(아레오바고)에도 초청받아 강연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사도행전 22:3). 아

테네에서의 그의 연설과 대화는 체험적이었으며 정확한 논리로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고린도전서 2:1~5). 그는 아테네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3. 고린도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60km 정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여서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체류하는 마치 인종전 시장을 방불케 하는 변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세운 많은 신전이 모여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니게 사람이 세운 아스다롯 신전, 브루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고린도 해협 북동쪽의 포세이돈(바다의 신) 신전, 고린도 광장 남쪽의 데메트(풍요의 여신) 신전, 광장 북서쪽에 있는 아폴로 신전, 그리고 1천여 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다는 아프로디테 신전 등이 있습니다.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이 있었을 정도로 많은 인구와 화려한 문화, 엄청난 경제적 규모를 가진 부의 도시이자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① 동역자를 만나고 ② 주님의 환상을 다시 봅니다.

(1) 바울의 동역자들

고린도에서 바울은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강론했고, 나가서는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할 때는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묵었는데, 디도 유스도의 집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리스보의 온 집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또 다른 회당장인 소스테네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매 맞았지만,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는 형제가 됩니다(고린도전서 1:1).

이렇게 여러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북쪽 도시인 본도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유대인이자 로마인이었던 실라,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 로마인(헬라인)으로 고린도에 있던 자신의 집을 집회의 장소로 내주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크게 도왔던 디도 유스도, 유대인의 회당 관리자 10명을 지도하고 감독했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테네 등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은 출신 성분과 지역,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는 제각각이지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2) 환상, 다시 나타나신 주님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사역지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겨웠던 곳이었습니다(고린도전서 2:3). 음란과 탐욕에 지배당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야 했고, 자신을 향한 성도들의 오해와 모욕을 견뎌야 했으며,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대적을 당해야 했고, 육체적인 질병과 약함 중에도 장막을 만드는 노동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사도행전 18:10). 환상을 통해 용기를 얻은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아가야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총독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의 초입 도시인 빌립보로 이끄실 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린도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환상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환상으로 말씀 주셔서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주셨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만남**

2030 세대 탈종교화 원인과 대책

〈지상토론회 예고〉

살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도록 기도하시고 가족들의 강건함과 우리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잘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한편으로는 감시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미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제대로된 직장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2030세대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때문일수도 교인때문일 수도 사회직장때문일 수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만남』은 이 이슈를 선택해 질문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거쳐서 2030 세대의 탈종교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작은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다양한 전문가와 교인을 초대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사회 및 진행 : 양지청 장로(영락교회 홍보출판부장)

제성호 장로(중앙대교수), 안창호 장로(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성광제 집사(카이스트 교수), 이영중(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경철(CTS 회장), 김기현 집사(서울대 철학과 교수), 심재수 장로(영락교회 선교부장), 박일환 장로(영락교회 대학부장), 백성우 목사(영락교회 교육부), 최재선 목사(영락교회 청년부), 차영수 집사(영락교회 만남편집장), 김효진, 나광호, 이현지(이상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청년위원) (추가예정)

토론 주제

1. 요즘 젊은 층 중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젊은 층의 교회 참석 감소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해야하지요?
3. 사회생활과 연결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 종교박해? 아니 사회생활하기가 불편해지는지?
4. 실제 적용에서 세상에 너무 재미난 프로그램이 많아 교회에 오면 시간이 지루하다 느끼니 교회도 재미있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으로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5. 신앙성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교회 공과 공부,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6.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시는 방안도 해주세요.

온라인(On-line)을 넘어 오프라인(Off-line)으로

- 대학부, 「예배와 양육」 주제 자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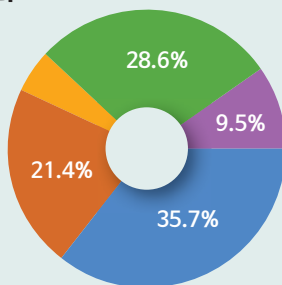
대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부 벗님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 보며, 더욱 나은 예배 환경조성과 향후 사역 방향을 수립하고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부 예배와 양육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 42명의 벗님이 참여 했는데, 학생회·사역팀·마을리더로 섬기는 벗님들의 응답 비중이 높았습니다(64.3%).

제한적 대면예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행한 조사였으므로 대학부 전체 구성원에 비해 응답자가 적어 신앙의 사각지대에 있는 벗님들의 상황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부 사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학생 리더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는 벗님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窓)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공 대학부

설문조사 주요 결과

‘온라인 예배 안전해서 좋지만’ 공동체성은 약화



대학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응답 42개

- 현장예배(35.7%)
- 온라인 예배(실시간)(21.4%)
- 온라인 예배(녹화본)(4.8%)
-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28.6%)
(현장 예배 빈도수가 더 높음)
-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9.5%)
(온라인 예배 빈도수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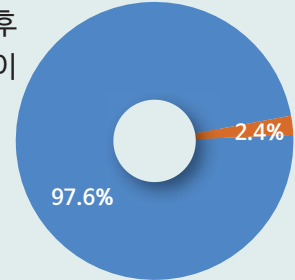
코로나 상황에도 92.9%의 벗님이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배 참여 형태는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병행 38.1%, 현장 예배 35.7%, 온라인 예배(실시간 및 녹화) 26.2%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인 면으로 ‘전염 예방 및 안정감(63.4%)’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53.7%)’라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인 면으로 ‘공동체성의 약화(62.5%)’와 ‘예배 집중이 어렵다

(57.5%)’라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이들 통계 결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코로나 예방효과 및 안전성을 들 수 있었지만, 반면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회중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 교제를 갈망하는 벗님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벗님들의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 대학부 현장 예배 참석 의향’ 질문에 97.6%가 참석 의향을 선택한 응답으로도 확인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대학부 예배 참석 의향이 있으신가요?

응답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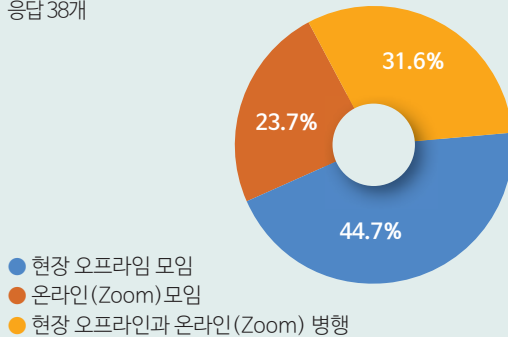


-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자 한다
-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한다

예배 후 GBS 모임은 ‘다양한 형태로 참여’

GBS에 참석한다면 어떤 형태로 참석하고 있나요?

응답 38개



- 현장 오프라인 모임
- 온라인 (Zoom) 모임
- 현장 오프라인과 온라인 (Zoom)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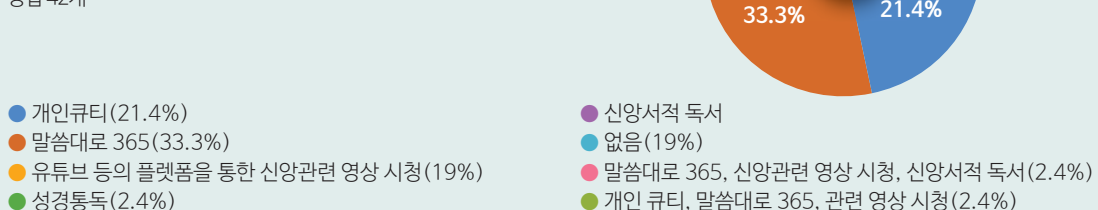
예배 후 진행하는 GBC(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매주 참석하는 벗님은 69%였으며, 참여 형태는 현장 오프라인 모임 참여 44.7%, 온라인 참여 23.7%, 온·오프라인 병행은 31.6%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GBS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은 9.5%로 응답했으며, 온라인(Zoom) 비대면 모임에 대한 거부감(66.7%)과 예배를 마친 후 다른 일정(33.3%) 등을 불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함께 해요! <말씀대로 365>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개인 경건생활을 위해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응답 42개



장기화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부 벗님들이 개인의 경건생활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으로는 <말씀대로 365> 말씀묵상 및 영상시청(33.3%)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 큐티 21.4%,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한 신앙 관련 영상 시청을 19%로 응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씀대로 365> 운동과 말씀 묵상(큐티)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경건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대학부 사역 방향

‘올라인(All-line: 온라인+오프라인)’ 사역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부는 방역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임을 탄력적으로 병행하여 ‘올라인(All-line)’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현장예배가 가능한 벗님들은 현장참석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벗님들은 온라인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해외선교의 문이 닫힌 상황 중이지만, 기존

의 해외 비전트립을 대체하여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예배드리고,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수련회 및 선교후원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사역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사역 형태를 모색하여 온라인 사역 콘텐츠 개발을 주력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기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대학부의 기도 제목

코로나19로 인해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벗님이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주목하기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학부 공동체가 되도록 영락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2021년 여름성경학교의 기억

홍보출판부가 주관한 여름성경학교 주제와 활동을 담은 사진, 그림, 원고 공모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응모 사진을 게재합니다.



유치부
김예찬



초등부
김현민
김수민



소년부
이예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2021 영락교회임산부학교

조이스쿨

일 정
10.16(토) - 11.6(토), 매주토요일

대 상
예비부모 및 임산부 누구나

강의안내

- 1주차 가족상담전문가 김숙경소장
- 2주차 산부인과전문의 최현일원장
- 3주차 임산부필라테스 노은혜강사
- 4주차 영유아유치부전담 홍지연육사

등 록
10.10(주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아래 쿼알코드

강철부대! 믿음의 용사 훈련을 마쳤어요



강철부대 입소를 환영한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말씀으로 단련되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명한다.

중등부 수련회(7월 23~25일) 전에 ‘마음의 소리’에 ‘강철부대’를 주제로 제출했던 4행시입니다. 4행시에서 알 수 있듯 올해 여름수련회 주제는 ‘강철부대 믿음의 병사를 찾아라’였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전투식량

수련회 홍보영상을 보자마자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여 예배가 끝나자마자 신청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물품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멋진 옷과 군변줄, 다양한 쥔

러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중등부 만의 성경책과 다양한 군용음식, 간식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위문열차’라는 프로그램으로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코너와 찬양, 말씀에 점점 빠져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פות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셨을지 고스란히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투식량, 건빵을 시리얼처럼 만든 건플레이크, 군용 카스텔라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에는 이영호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주제로 말씀하시고 친구들끼리 줌으로 접속하여 토론도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 명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저와 같은 의견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교육을 왜 하는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상도 보여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들의 의견도 차분히 듣고 말씀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수련회 주제인 믿음의 병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세우기를 기도해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시작 전에 미리 '강철부대원'을 뽑아서 카카오 톡을 이용해 감사제목과 수련회 찬양듣기 등 미션을 수행했기에 찬양이 더 가깝게 다가왔고 마음을 다해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기도하며 내 비전을 이루기로 결단

장신대학교에서 오신 김태섭 목사님께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집회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첫날 목사님께서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사랑하게 된다"라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사님은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져서 식사기도 외에는 좀처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목적지가 어디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부

터 기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서 주일마다 영락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부족하지만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은혜로운 중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저희 삼 형제에게 처음으로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3~4)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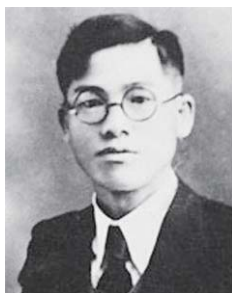


조한서
중등부 3학년

온라인으로 다녀온 국내 성지 순례

지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온라인 국내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아웃리치를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해외로 가는 것은 아직 불가능했어요. 국내 성지조차도 실제로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다녀오셔서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일을 묵상했습니다. 매일 <말씀대로 365>를 읽고 신앙 일기 쓰기, 성경 암송과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기, 월요만나 묵상하기 등으로 바쁘지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들 죽인 자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



첫 번째 주 여행지는 전남 여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5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게 생활했지만, 목사님이 돌보시던 나병환자들을 위로하며 편지를 쓰셨어요. “어떤 고난이라도 다 자족하게 여깁시다”라며 희망을 주었지요.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유희를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목사님은 나병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짜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병환자에게 표현한 것

이지요.

광복되었어도 목사님에게는 엄중한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목사님은 피난을 가지 않고 양들(성도들)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북한군에게 사형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여순반란사건 때 목사님이 사랑하신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 것이겠지요. 저도 하나님 안에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묵상했습니다.

남녀가 따로 앉았던 ㄱ자 교회

두 번째 주에는 금산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놀랐습니다. 교회 건물이 ‘ㄱ’자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남녀가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건물을 ‘ㄱ’자로 짓고 가운데 꺾이는 곳에 설교자가 서고 양쪽에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앉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 지역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교회를 짓고 장로를 뽑을 때, 양반 지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왼쪽부터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



김제 금산교회 7차 예배당 모형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덕삼은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는 나중에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고요. 양반·상놈 구별이 심하던 시대에 예수님 사랑으로 이런 교회의 역사를 만든 분들 이야기에서 복음의 힘으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묵상했습니다.

독립선언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마지막 비전트립은 유관순 열사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1919년 삼일절 독립선언 33명 중에서 16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놀라웠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크게 노력했다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열일곱 살 어린 나이로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대단한 일을 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온라인 국내 비전트립’을 마치며, 동영상에 나온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나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신앙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 참 좋았습니다. **만남**



채희진
중등부 1학년

전하Go! 사귀Go! 누리Go!

2021년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사랑부 절제마을 조상현 성도 작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랑부 예배실에서도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왜 교회에 갈 수 없는지, 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전화와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대화와 기도는 더욱 애절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하Go! 사귀Go! 누리Go!’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어떻게 해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처럼 은혜롭게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쭈화상회의로 연극 연습

특히 연극부는 더더욱 고민이 컸습니다. 비대면 회의의 필요성에 따라 조금씩 익숙해지는 쭈화상회의를 학생들 연극 연습에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과연 사랑부 친구들이 잘 따라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부 부장장로님께서는 연극부 학생들이 연극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어떻게든 그들의 달란트를 키워주고자 하는 생각이 지극했습니다.

고심 끝에, 지난 몇 년간의 절기 연극대본을 집으로 보내주고, 주일 예배 직후에 시간을 정해서 7명의 학생과 쭈 화상회의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6명의 친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고, 1명의 친구는 혼자 힘으로 쭈에 성공적으로 접속했습니다. 볼 수 없었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서로 안부를 물어보며 즐거움과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온데간데없어지고, 학생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과거 작품의 대본을 읽고 그 시절에 느꼈던 느낌을 되새기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의 순서를 잘 기다렸고, 자기 차례가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감정을 살리면서 연기하듯 대사를 읽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른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쭈으로 만나는 연습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간단한 대본을 작성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적당히 섞여 맛있는 주먹밥이 되듯, 구원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여 믿고 깨달아. 멋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사랑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전하GO! 사귀GO! 누리GO!'

니다. 연극반 7명의 학생은 흰밥, 김, 당근, 시금치, 계란, 요리사 배역을 맡아 각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주일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가면을 만들어 학생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소포로 가면을 받은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분량을 촬영하여 보냈습니다. 모인 영상에 음악과 영상 효과를 입혀서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

사랑부의 교육환경부, 친교부, 봉사부 등 교사들은 여름성경학교가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활동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집마다 발송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를 잘 표현하도록 티셔츠를 꾸며 집에서 패션쇼 하기, 교회 탐구생활, 과자로 교회 모양꾸미기, 직접 오리고 붙여서 전등불이 켜지는 교회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배운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뒤, 많은 학부모님께서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즐겁고 뜻 깊은 여름성경학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사랑부 친구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따금 사랑부 가족의 간증들을 통해,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랑부 형제 자매를 이웃으로 섬기게 하시는 뜻은, 그들을 섬기는 우리 하나하나를 성장시키고 복 주시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겸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부 모든 지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여름성경학교에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좋아하고 신나는 시원한 물놀이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류혜선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사랑부 연극부장

영락 청년들의 미션 챌린지!



청년부는 지난 8월 16일(월)부터 한 주간을 ‘미션 워크’로 선포하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매일매일 한 개씩 주어지는 ‘미션 챌린지’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말씀적용과 실천을 이어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도전’을 이어갔던 영락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제공 청년부

선중현(청년회장)

세상 속에서 도전은 어쩌면 개인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은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챌린지’하는 영락 청년부가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같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같이 도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엄준필(주나나무)

‘미션 챌린지’를 통해 그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재식(광야소리)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입니다. 평소 복잡한 교직 행정업무에 서툰 저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학생들을 더욱 사랑과 인내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작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와 실천이 일상의 기쁨과 감사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효진(꿈꾸는땅)

우리의 일상에서 따스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과 같이 작은 것으로도 주변에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통해 사랑이 없는 팍팍한 세상에 예수님의 위로를 스며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대성(꿈꾸는땅)

분주한 일정 중에 추가 업무가 내려와서 불편한 심기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불평하는 마음이 뽀죽뽀죽 새어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갑자기 후원 물품으로 들어왔는데 10kg이 넘는 물량을 8가정이나 배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씨와 바쁜 배송 일정에 짜증이 났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감자를 전달해야 하는 분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소중하게 느껴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션 클리어’의 순간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밝게 인사한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정제되지 못한 저의 뽀죽뽀죽한 마음이 제 마음 어딘가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성아! 괜찮아! 힘내라!’라고 위로받은 하루였다는 생각에 비 오는 퇴근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이성원(꿈꾸는땅)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의미 없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니, 더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바른(꿈꾸는땅)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혹은 내 중심이 그분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미션 챌린지’는 나의 일상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시도케 하신 일 또한 그분의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서희(꿈꾸는땅)

분주한 일상 중에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않아야 할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던 하루지만 아침마다 그날의 ‘챌린지’를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과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 새롭고 감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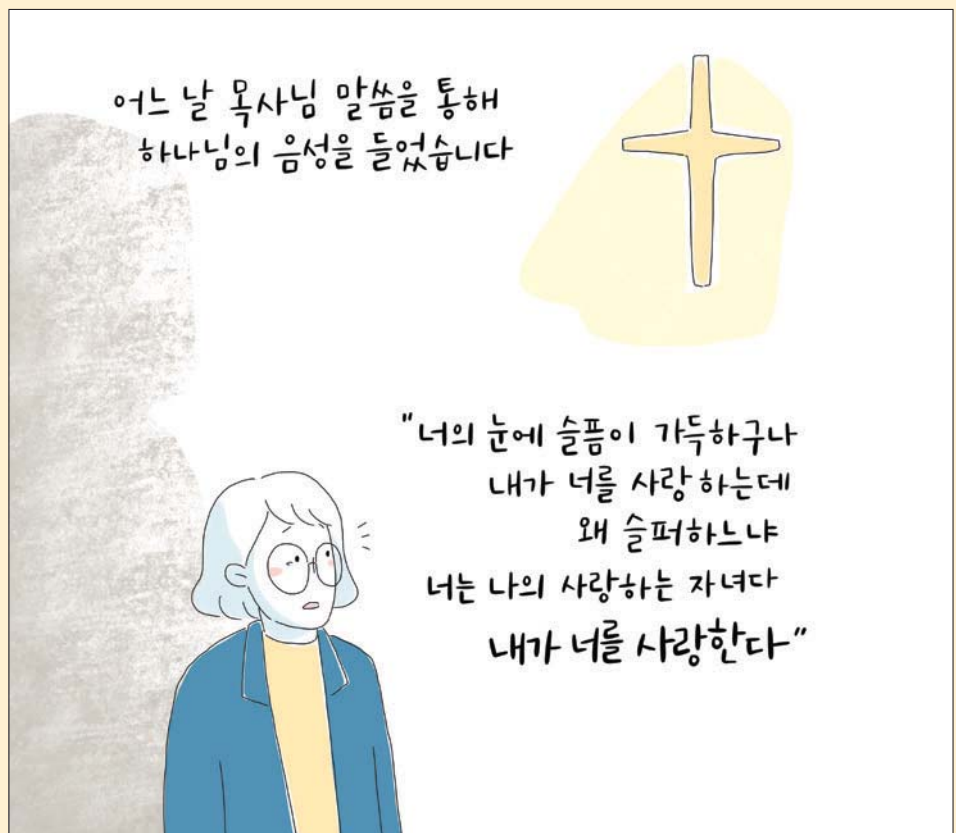
정윤희(주는나무)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만 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과자가 눈에 들어와 주섬주섬 과자를 몇 개 샀습니다. 과자를 고르며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즐겨 드시던 과자들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오는데 경비 아저씨께 한 개 드리고, 평소 아는 어르신 댁에 벨을 눌렀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시더라고요. 몇몇 어른들께 과자를 드렸더니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미션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 또한 채워주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글·그림 이화선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슬픔의 이유,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은
남들의 시선과 나의 평판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던 내 모습

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따금씩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되돌아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붙어있으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영·코·프’로 선교적 예배 확산

영락중학교는 6.25 전쟁으로 학업의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1952년 영락교회 안에 개설한 성경구락부가 모태입니다. 1959년 영락중학교로 정식인가를 받았고 1967년에 응암동 교사를 신축하여 학교를 이전했습니다. 2005년 한경직관을 신축했으며, 현재 남녀공학 총 24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락중학교는 예배하는 학교입니다

영락중학교는 매주 수요일 아침,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영락중학교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영·코·프’라는 이름의 더욱 실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락 코로나 프로젝트’의 줄임말인 ‘영·코·프’는



영락중학교 교훈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외적인 형식만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영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인 예배를 통해 영락중학교는 시대적 상황에서 희미해져 가는 영락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천애인’ 교훈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만이 아닌, 부모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현합니다

‘영·코·프’는 학교에서 2019년에 진행한 바 있는 ‘소아조로증 캠페인’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영락의 학생들은 예배 자리를 통해 소아조로증 환우에 관해 듣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아조로증 환우들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중학교 학생 한 명으로 시작된 손글씨 쓰기 캠페인이 SNS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퍼지지 시작했고, 연예인과 정치인을 비롯한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우리 캠페인에 참여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영락중학교 환경직관 전경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영락중 학생들의 격려 메시지(2019년 소아조로증 캠페인)

자발적으로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여 아시아 프로제리아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락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천애인이라는 교훈이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적 행위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락의 교사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학생들, 배움이 느린 학생들까지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현재 영락중학교가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소문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락중학교는 선교하는 학교입니다

영락중학교는 학생들을 지역교회와 연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영락교회로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가까운 지역교회를 연결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역교회의 사역자들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거리를 좁혀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지역교회 사역자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개설해 주었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청소년부에 1명도 없던 지역교회가 영락중학교 학생만으로 40여 명이 채워지는 믿기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사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일은 앞으로도 영락중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영락중학교는 학생과 지역교회를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 지역교회와 지역교



‘영·코·프’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영락중학교

회를 연결함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의 미션스쿨을 섬기는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영락중학교에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락중학교가 이 시대의 많은 미션스쿨을 섬기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락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하는 일과 일맥상통합니다. 영락교회가 단순히 영락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를 섬겨 왔듯이, 영락교회를 모체로 하는 영락중학교도 힘겨운 시대를 사는 이 땅의 많은 미션스쿨을 섬기고 싶습니다. 사실 이 꿈은 영락중학교뿐 아니라, 영락학원에 속한 3개 학교(영락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모두 함께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학원의 교목들은 정기적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지난해에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로 영락학원 학교들을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 영상과 수업 영상 등을 제작하여 다른 미션스쿨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 잠시라도 영락중학교와 영락학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미션스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사역에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홍만우 목사
영락중학교 교목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공동체

- 제2남선교회 국내선교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

눈을 들어 받을 보는 제2남선교회

제2남선교회는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감사가 넘치며 하나 되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해외선교와 국내선교 지원 사역 등 주님께서 부여하신 선교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훈련과 기도, 물질로 함께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명을 굳게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감사, 직장에서의 감사, 교회에서의 감사를 바탕으로 2남선교회 회원들 간의 은혜의 교제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선교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2남선교회 해외선교 지원 사역은 예전부터 기획된 선교사역을 위주로 줌(Zoom)을 통한 비접촉,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화요기도회를 통해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와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2남선교회의 전반기 사역은 회장단을 중심으로 국내 선교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남선교회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국내 선교사역 중에 은혜와 감동이 담긴 사연들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브니엘교회

2017년부터 교회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브

니엘교회’에 올해에도 선교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건물 지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지상층으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 목사님을 포함한 15명 성도가 간절한 성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교회



2018년부터 2남선교회가 지속해서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신앙공동체인 ‘살아있는교회’에 올해에도 선교지원금을 전달했으며, 7명의 적은 성도가 교회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으나 믿음과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지에서온교회

올해 4월에 2남선교회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예배당을 지어 헌당한 경희의료원 안에 있는 ‘성지에서온교회’에 선교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경희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약 20여 명의 성도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



올해 초 뜻밖의 화재로 소실된 전곡중앙교회



으며 은혜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곡중앙교회

우리 교회 노원교구 백현준 전도사님의 부친이 시무하시는 교회인 '전곡중앙교회'는 올해 초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해 교회 건물 전체가 소실되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재건사업에 김운성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영락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동참했고 2남선교회도 선교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속히 전곡중앙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전진교회

지난 부활절에 전방 사단 안에 있는 군인교회인 '전진교회' 부대 장병들에게 부활절 축하 달걀을 지원하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맺는교회

교도소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천막 교회인 '열매맺는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고

려하여 냉방시설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설비 및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2남선교회는 교구별 각 지회를 통해 '농아인 선교방송 및 수화성경', '영락어린이축구교실', '인천예수주안교회'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남선교회 회원 모두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만남**



최영호 집사
서대문·은평교구
제2남선교회 부회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제3남선교회, 22차 인터넷 해외선교봉사



9월 12일 선교부에서 열린 선교지원금 전달식. 사진 오른쪽 세 번째가 필자

얼마 전 코로나19 이후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7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가신 그 축복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방향하는 걸음이 되어 설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14개국 파송 평신도 선교사 20가정 지원

주님께 아픈 마음을 올려 드리며 기도하던 중에 2021년 3남선교회 임원으로 동역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지속으로 해외선교지 출국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인터넷 해외선교봉사의 진행여부를 놓고 함께 기도로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주님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올해 22차를 맞이하는 3남선교회의 인터넷 해

외선교봉사의 선교지원 사역으로, 14개국에 파송된 우리교회 출신 평신도 선교사 20가정을 결정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영락청년부 출신의 젊은 선교사님들을 우선하여 최대한 섬기기로 세운 내부방침이 드디어 작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선교부에서 열린 선교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2천만 원의 선교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20가정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여, 선교현장에서 사용할 IT 장비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4일(월) 오후 5시에는 후원 선교사님 20가정을 화상으로 연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사역보고와 선교간증을 나누는 온라인 집회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영적전투의 최전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힘들어 낙담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남**

‘2022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항존직 선거] ④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장로 20명과 안수집사 2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전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바랍니다.

■ 선거일정

▶ 후보추천서 접수

9월 26일(주일) ~ 10월 10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접수 방법 : 이메일/우편 또는 현장 접수(주일: 9/26, 10/3, 10/10)

▶ 공천후보자 기도회

2021년 10월 31일(주일) 찬양예배 후, 벨엘

▶ 선거일자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 투개표 진행

1차 투표(후보대상) : 2021년 11월 14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2차 투표(1.2 배수) : 2021년 11월 21일(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투표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 후보의 선정

1. 장로·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을 하여
선출인원(장로 20인, 안수집사 20인)의 1.5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후보자는 추첨(제비뽑기)으로 기호를 정하여 1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2배수로 실시한다.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올라인(All-line) 사역을 준비하는 영락교회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텅 빈 성전을 보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낯설지만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형식과 조금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매체를 통해서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사역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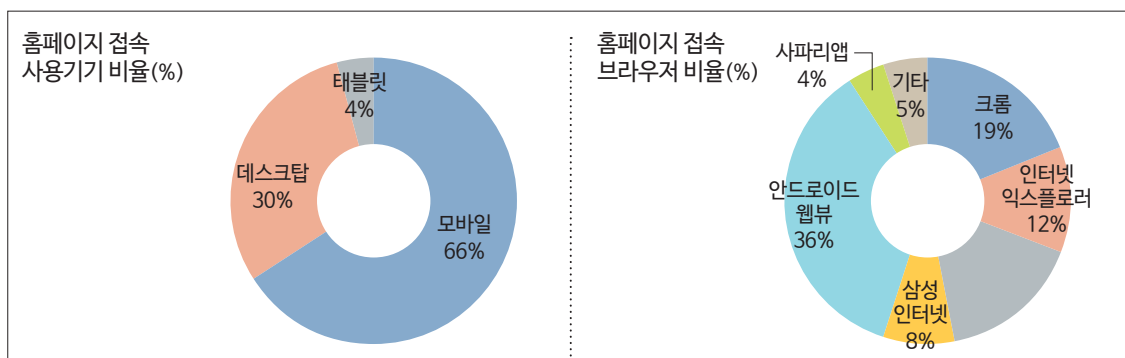
올라인(온라인+오프라인)교회로!!

교회 공동체의 미디어, 온라인 사역은 기존의 대면예배 중심에서 PC나 핸드폰 등 개인용 단말기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비대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기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이며,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작은 예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존의 사역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꾀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미래의 영락교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e-교구 마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새신자 교육, 제직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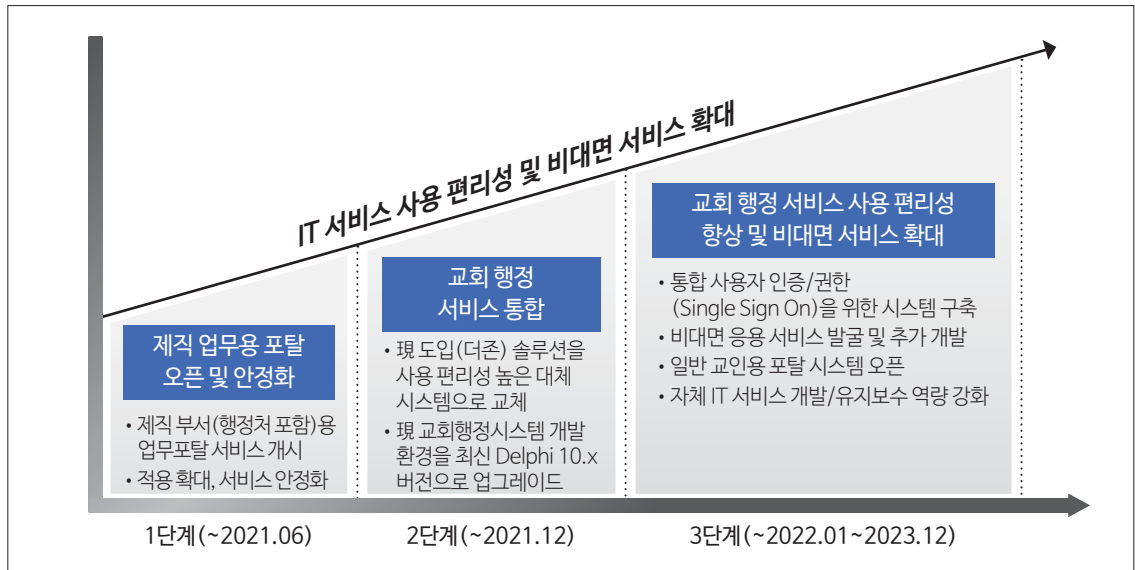
육, 제자양육훈련과정, 선교훈련과정 등)이 알차게 진행되어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일방향 소통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줌(zoom)을 비롯한 화상 플랫폼, 양질의 콘텐츠 미디어 지원 등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으로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회사역이 가능해진다면,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되어 작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구역, 교구와 같이 구심점을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지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교회사역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온라인 사역’에 기존의 ‘오프라인 사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표 1〉 홈페이지 접속 기기 및 브라우저 (방문자의 영락교회 홈페이지 접속 기기 및 브라우저 사용비율)



2021년 1월 홈페이지 방문 로그 분석

〈표 2〉 IT 서비스 3개년 발전 방향(향후 3년간의 영락교회 IT Service 발전방향(Road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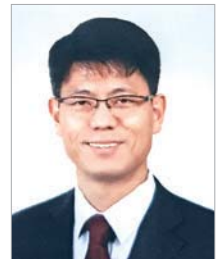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회' 준비

IT미디어부에서는 '올라인 교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 미디어 제작 강화를 위한 전문사역자 구성 및 홈페이지 보완 및 재구축을 위한 사업'을 목표로 2022년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습니다.

- ① 콘텐츠 미디어 개발 및 제작에 임할 인원을 모집하여 사역 네트워크를 구축
- ② 예배 영상 콘텐츠 및 각 제작부서의 콘텐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장기 보관하여 부서 간 상호 활용 방안 마련
- ③ 콘텐츠 미디어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영상 녹화 및 제작할 수 있는 공개홀과 녹화 전문 스튜디오에 대한 개·보수 계획 수립
- ④ 모바일 접속 비율 증가에 대응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검색기능 강화 또는 향후 개발될 포털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앱(App) 개발(〈표 1〉 참조)

향후의 온라인 예배는 전통적인 대면예배를 보완하고 시청하는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콘텐츠 미디어를 활용하여 말씀 중심의 영적 예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미래 예배'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삶의 간증으로 나누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온라인 공간이 또 하나의 든든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최현우 안수집사
노원교구
IT미디어부 차장

멈출 수 없는 사명

샬롬.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사역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돌아보면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선교부 식구들과 선교부에 속한 남·여선교회, 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 등 많은 작은 단체와 함께 동역하며 부족한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과 부르심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 도착해서 그때까지 제 나이의 인생 절반 정도를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선교지에서 부모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도울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그러하듯 처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 현지 상황으로 인해 사역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선교지에 도착한 당시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언어, 학업, 정체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학교에서 현지 친구들이 제게 말을 걸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같이 높아 보이던 장벽을 하나씩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지를 떠나 한국에 돌아온 후에 저처럼 선교사 자녀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영락교회 선교부에

서 3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전에는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선교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었고, 지금은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3년여 사역하며 선교 현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영락교회에서의 남은 기간 사역을 잘 마치고 주께서 부르시는 때에 언제든지 선교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의 선교사역

영락교회 선교부는 한경직 목사님 때부터 중추적으로 한국교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농어촌, 군, 해외, 문화, 학원, 미디어, 외국인,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분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많은 선교현장 및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남녀선교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 MMS(미디어선교학교), 선교대회 등을 통해 기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 세계선교부 위탁교육 기관인 선교훈련학교를 통해 선교에 뜻과 열정이 있는 영락교회 내외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교사역 중에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여전도회 임원들과 한 대의 스타렉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열악한 선교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던 일과



제2여전도회 임원들과 열악한 군부대교회 방문



2019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선교부 미디어선교학교 (MMS)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고 선교현장과 본부의 가교역할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통하여 주신 은혜

제가 이처럼 선교지에서 12년,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3년 동안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선교현장에서 묵묵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에스라 1:5~6)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한 지 70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채워지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금 신앙의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건축을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로 사용하셔서 헌신하고자 결단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락 성도님들의 셀 수 없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국내외 할 것 없이 풍성한 선교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산을 넘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선교 사역에 멈춤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남**

김우람 전도사
선교부

치아 건강 관리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청장년이나 노년 모두 치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성질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병이 진행되다가 노년기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30, 40대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구강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1. 치주질환(잇몸병)

진료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환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치주질환일 것입니다. 일명 ‘풍치’라고도 하지요.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찬바람에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 치조골이 흡수(염증으로 골조직이 녹아서 소실되는 것)되면 찬바람, 찬물, 더운 물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치근막이 부어 치아가 정출(삐아오름)되면 음식물을 씹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해지면 치아의 동요가 오고, 급기야 발치(치아를 빼는 것)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정기적 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치아

는 사람이 제조하는 임플란트와 의치 등 여러 종류의 보철물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당뇨와 골다공증 등 치조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치아우식증(충치)

요즈음은 치아우식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이 감소하여 긴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각종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 중의 방사선 치료로 인해 2차적으로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3. 발치 등으로 인한 치아 상실 시의 보철치료

① 임플란트

‘보철치료에 있어 언제나 임플란트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편견입니다. 환자마다 다른 치조골 상태, 신체의 건강 상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유치, 영구치’ 뿐이지 ‘임플란트’는 영구치의 대용이 아닙니다. 적절히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욕심을 내어 고생



김치홍 집사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치과의사)

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② 브릿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보철 치료법인 데, 지대치(기둥 역할을 하는 치아)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큰 무리가 없는 치료법입니다. 결손 부위가 넓지 않고, 치조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조골이 많이 흡수된 경우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지대치에 무리를 주어 치아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의치(틀니)

결손 부위가 넓고, 치조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의치와 부분 의치가 있는데, 대체로 환자분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때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치료법 외에도 여러 종류의 치료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치료법은 위의 3가지 정도이고, 그 외 치아 변색이 심한 경우에 치아의 바깥쪽 표면을 최소한으로 삭

제하고 인공 세라믹 보철물을 붙이는 라미네이트(porcelain laminate veneer)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우식증 치료에 금이나 레진 등으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

① 50~60대를 넘기면서 침샘의 기능 저하로 타액의 분비가 줄어서 구강건조증(xerostomia)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병이라기보다 생리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굳이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거나 행구어내어 구강 점막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습관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환자 중에 지나치게 치실과 치간솔을 사용하다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실과 치간솔은 소독이 철저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환자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치약 선택에 관한 것이 있는데, 치약도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치약은 가격과 효능의 상관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치과의사와 상의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감기 등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있을 때는 치아가 시리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잇몸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잇몸 관리와 필요한 치료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평소 심장질환이 있어서 혈전 방지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외과적인 처치를 할 때 피가 멈추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약과 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할 때 충분한 상담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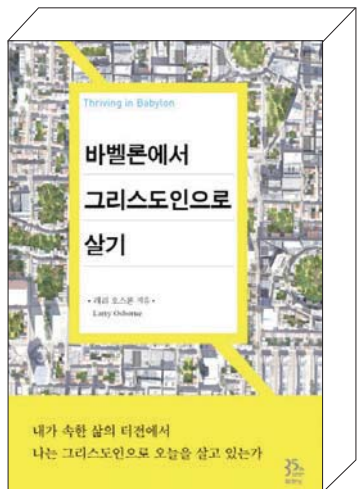
⑥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 후 치조골의 괴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역시 충분한 상담 후 시술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⑦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꼭 해야 한다는 지나친 강박 관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석도 없고 구강 위생 상태도 양호한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각 과민 증상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⑧ 수면 시 입을 벌리고 호흡(구호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도 확보가 충분치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호흡으로 인해 구강 점막이 건조해져서 잇몸병을 촉진하고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강은 우리 몸의 건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고통도 예방하고, 음식 섭취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이 만든 보철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치아’를 잘 아끼셔서 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남**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래리 오스본 지음/정성목 옮김/두란노서원/2015년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건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반감으로 변했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세상은 점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末世之末)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

고자 합니다. 미국의 래리 오스본(Larry Osborne) 목사가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악했다고 평가받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변성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다니엘하면 사자 굴에서 멀쩡하게 살아 나온 영웅적인 면모를 떠올리는데, 저자는 다니엘이 끝까지 견지했던 세 가지 강력한 품성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가지 품성은 소망·겸손·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소망’, 원수 된 나라의 정복자가 됐지만, 그들을 존중해 주고 섬기는 ‘겸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상황과 미래를 보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변성할 수 있었던 근거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탁한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을 공격하고 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향할수록 무시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남**



전병주 목사
노원교구
사회봉사부, 친교부

하나님의 빛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며 사회 전반이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지만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은 갈망에 더하여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둡지만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 지친 나의 삶



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언제나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림 그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림 그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남**

이순영 성도 _ 강북·도봉교구



<말씀대로 365> 마지막 여정 시작

성경 일독과 말씀 묵상을 목표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말씀대로 365>가 8월말 <에스겔>을 끝으로 말씀통독 교재 제2권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마지막 여정인 제3권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122일간 진행될 제3권에는 <다니엘>부터 <말라기>로 이어지는 구약 후반부의 예언서가 마무리되고 9월 23일부터 시작된 <마태복음>을 필두로 신약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된다.

교회소식

news letter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및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려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우리 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지난 9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대면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서울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예배를 겸해 드린 이날 예배는 제1남선교회 회장 안태운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연합회 회록서기 안상천 장로(새문안교회)의 기도와 제3남선교회장 김신희 집사의 성경봉독 후, 금호중앙교회 안광국 목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디모데후서 3:13~17)’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영락교회 남선교회 소개 영상을 상영한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 및 단체를 위한 특별헌금 순서를 갖고 제2남선교회장 임우섭 장로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연합회 회장 김대진 장로(연동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



이지만, 민족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헌신하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합회 총무 이인철 장로(금호교회)의 사업보고 후,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대광고 교장 이·취임식 – 제14대 조순묵 교장 취임



대광고등학교 교장 이·취임식이 지난 8월 30일(월) 오후 2시 교내 추양기념대강당에서 열렸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예식은 교목실장 우수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학교법인 대광학원 이사장 김운성 목사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부이사장 이영선 원로장로가 전임 김철경 교장과 신임 조순묵 교장을 소개한 후 전임 교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신임 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조순묵 교장은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대광고 제14대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경천애인’의 대광학원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기독교 교육의 성장 및 발전을 기대해 본다.

제공 대광학원

교계소식

조용기 목사 별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9월 14일 별세해, 18일 한국교회장으로 장례예배를 치른 뒤 오산 리최자실국제금식기도원 묘원에 안장했다.

1936년 경남 언양군 진장에서 태어난 조목사는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뒤 장모 최자실목사와 부인 최 김성혜 한세대 명예총장과 함께 서울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1973년 여의도에 연건평 3200평 규모의 순복음중앙교회(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건축했다. 입당 예배 때 1만 명이던 교인은 1979년 10만 명, 1984년 40만 명을 넘어섰고 1992년 등록교인이 70만 명을 넘으면서 1993년 세계 최대 교

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조목사는 2008년 5월 이영훈 목사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자리를 내준 뒤에도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맡는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조목사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하나님의 성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제3세계 선교에 나섰으며 1999년 비정부기구(NGO)인 사단법인 선한사람들(현 굿피플)을 세워 인권, 환경 및 아동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조목사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4차원의 영적세계』 등 다수의 저서도 남겼다.



김세환 은퇴장로 별세, 9월 15일 교회장



김세환 은퇴장로가 지난 9월 13일(월)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1929년 평북 의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고려대 의대와 동 대학원의 학박사 학위 취득 후 평생을 크리스천 의료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기독의사회 회장, 영락의료봉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선교 사역에 앞장섰다. 우리 교회에서는 1986년 12월 집사 안수 후, 1989년 12월 제22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1999년까지 당

회원으로 섬기며 갈릴리찬양대장, 아동부·유아부장, 상담부장, 감사위원장,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 극동방송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례예식은 9월 15일(수)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가 집례하여 교회장으로 드러졌으며, 장지인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박지운 목사가 집례하여 엄수된 하관예식을 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숙 은퇴권사와 4남(창호, 경호, 동호, 성호)의 자녀를 두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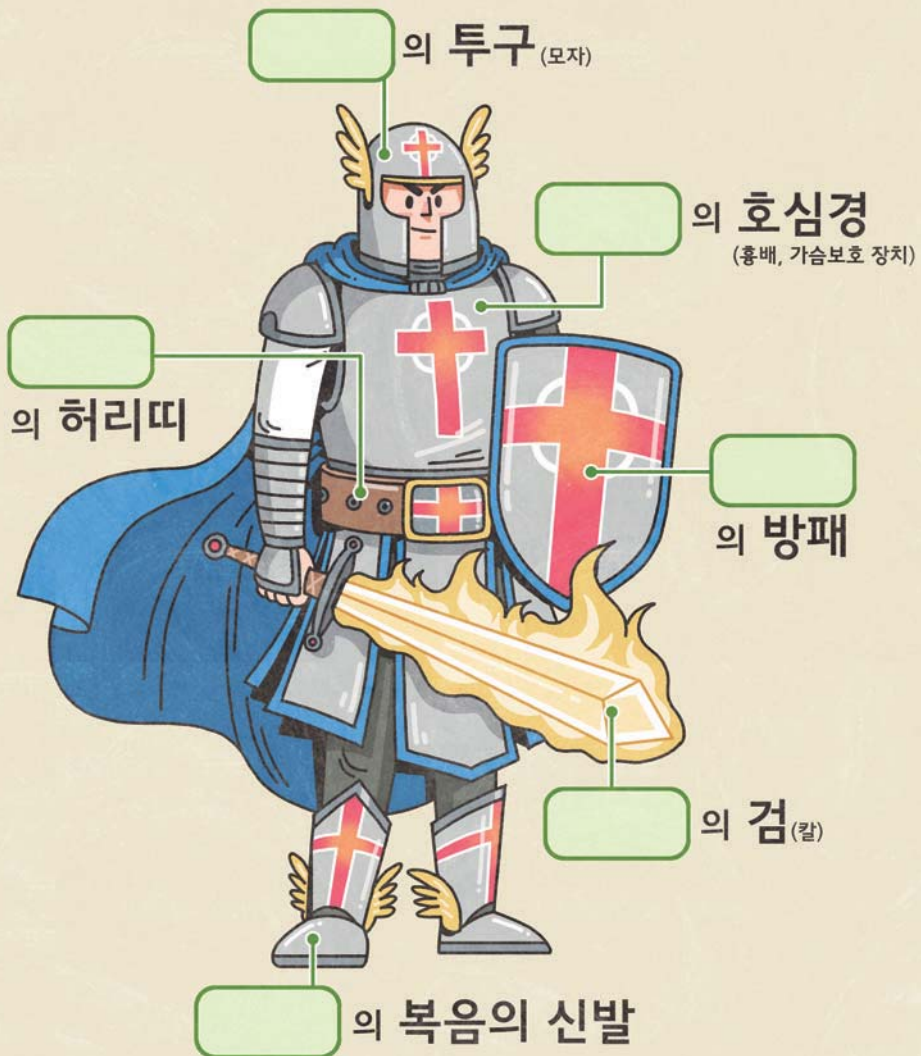
빈칸 채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은 몸에 입는 갑옷과 쓰는 헬멧)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세요. 힌트는 (에베소서 6:10~18)



10월 목회력

1일(금)	연합권찰공부
2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3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8일(금)	선교대회 특별금요기도회 및 문화선교공연(바울)
10일(주일)	선교주일, 학원선교대회, 제직회
13일(수)~15일(금)	선교부흥회
15일(금)	심방준비회
17일(주일) ~11월 21일(주일)	전도대로 365
24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아동부찬양제 우하하하
31일(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 10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다른그림찾기



2021년 10월호 통권 572호

발행 2021. 10.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강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운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www.youngnakmn.net



2021 선교대회

너희는 너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주여, 멈추지 않게 하소서

2021년 10월 8일(금)-15일(금)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선교부흥회 강사)

선교부흥회 13일(수)~15일(금) 오후 7시 본당

선교대회 특별금요기도회 8일(금) 오후 8시 본당
문화선교공연-‘바울’

학원선교대회 10일(주일) 오후 5시 본당
김완진 목사(한동대학교 교목)

수요1부기도회 13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김동찬 선교사(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원 이사장)

농어촌전략세미나 13일(수) 오후 1시 30분 온라인(영락교회 홈페이지)
최동규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전필기 목사(하늘꿈동산교회)

해외선교전략세미나 14일(목) 오후 1시 30분 온라인(영락교회 홈페이지)
문성주 목사(글로벌비전센터), 황관중 선교사(M국, 영락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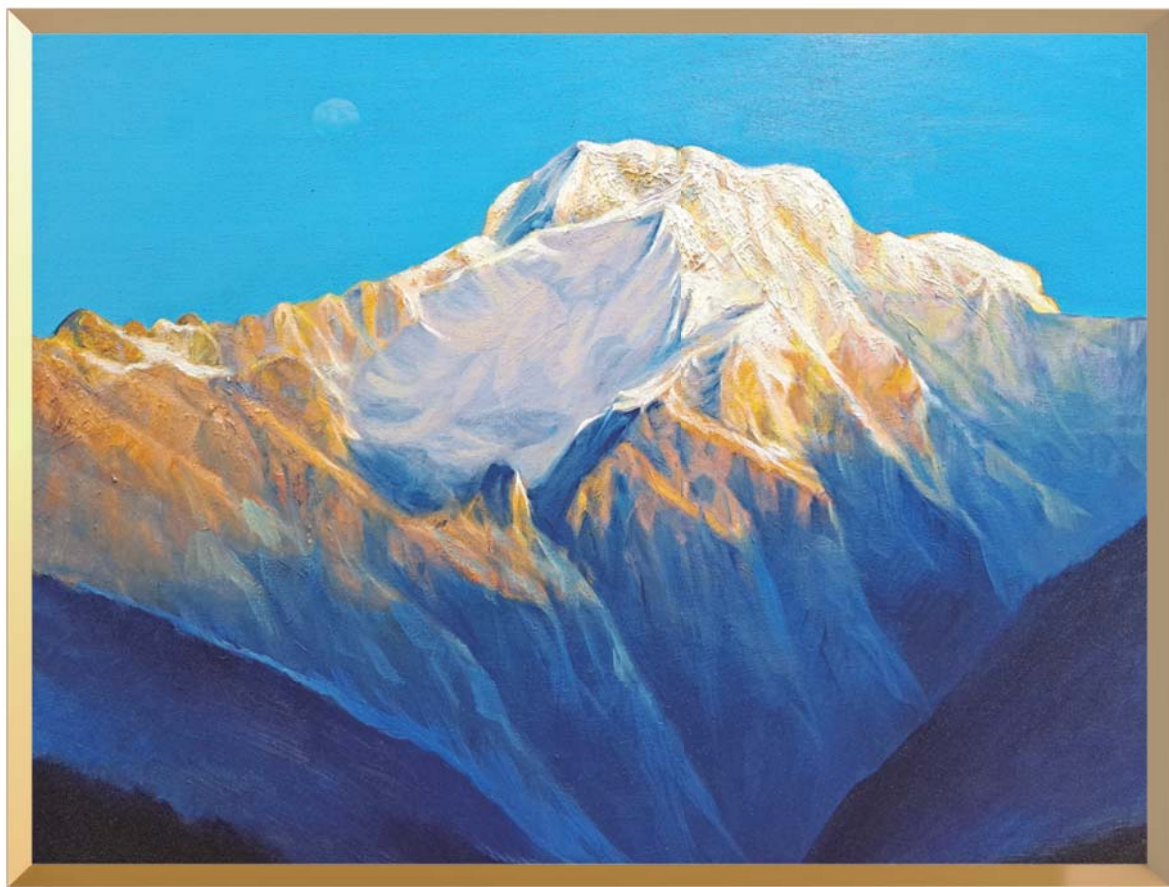
군선교전략세미나 15일(금) 오후 1시 30분 온라인(영락교회 홈페이지)
윤대운 목사(육군 독수리교회), 김은경 목사(육군 상승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화랑

하나님의 빛



이순영, Oil on canvas, 72.7×60.6cm, 2020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6)